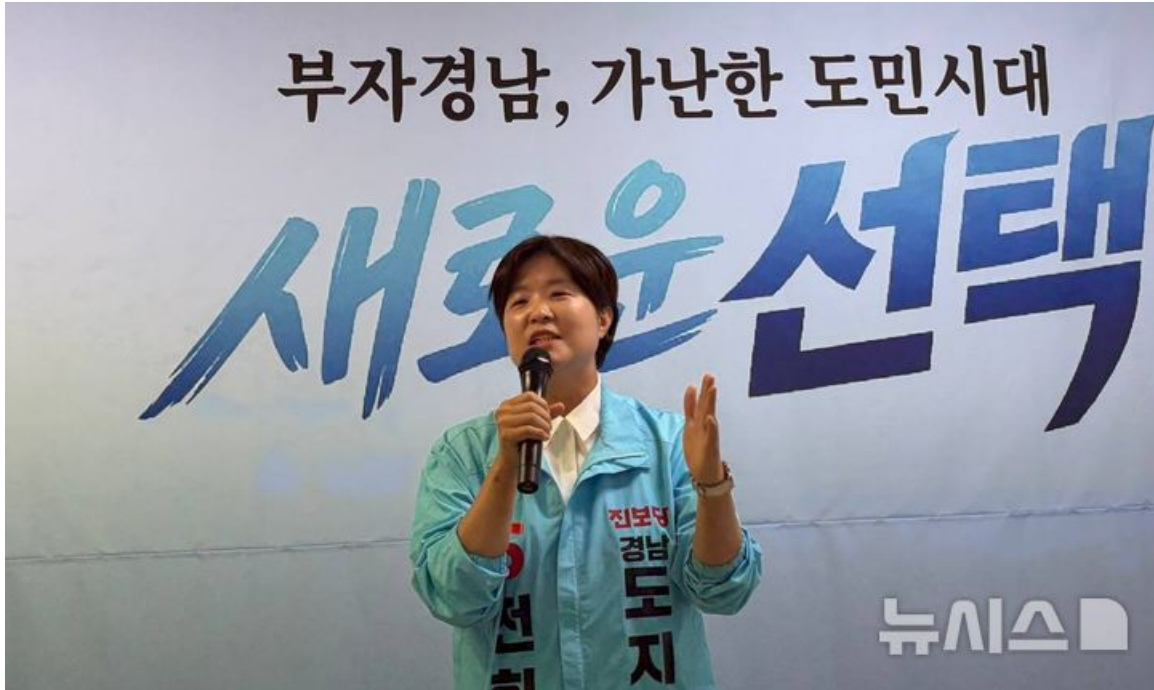


전희영 도지사 후보 "김경수·박완수 아닌 새 인물 필요"

등록 2026.05.16 20:24:41



[창원=뉴스시스]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가 16일 오후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희영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16. photo@newsis.com

[창원=뉴스시스]홍정명 기자 =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는 16일 오후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박완수로 이어지는 경남도정에서 주인은 바뀌었지만 경남 도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 경남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섬기는 정당은 진보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정치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전희영 후보는 도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노동자·농민·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과 아이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천욱 상임선대본부장은 "진보당은 쓰레기 줍고 칼같이 봉사에도 함께하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자"고 주문했다.



[창원=뉴스시스]16일 오후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전 후보와 주요 인사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희영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16. photo@newsis.com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진정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남에서 진보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민중에게 새로운 진보정치 세력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박갑상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은 "진보정치가 실현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국민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씨 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더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개소식 참가자들은 6·3지방선거 승리로 진보정치 전성기를 열어내고, 경남의 정치판을 바꾸는 데 더 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